

‘야권 통합 길을 묻다’ 연쇄 인터뷰

민주당 손학규 대표

■ 손학규는 누구

경기지사 77만개 일자리창출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70년대 서울대 재학 중 반독재 투쟁을 했던 재야 운동권 출신으로 유신 체제 종식 후 영국 유학길에 올라 유크스퍼드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인하대와 서강대에서 교력을 잡았다.

그는 문민정부가 출범한 지난 1993년 당시 전방위로 진행되던 문민개혁을 돋기 위해 광명 보궐선거에서 민자당 후보로 출마, 당선된 뒤 그 지역에서 내리 3선을 했으며 당내 소장개혁파의 리더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2002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당선되면서 대권주자의 반열에 올랐다. 특히 경기지사로 일하면서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정도로 외자유치에 주력, 77만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다.

‘100일 대장정’ 대선후보 경선



손 대표는 경기지사에서 물려남과 동시에 ‘100일 민심 대장정’을 하며 대선후보 경선에 뛰어들었으나 한나라당의 한계를 지적하며 탈당을 결행, 구여권의 대권 레이스에 합류했다. 그러나 취약한 조직 기반에 발목이 잡히면서 정동영 최고위원에게 대선 후보 자리를 내줘야 했다.

2008년초 대선 참패의 상처로 허덕이던 당에 구원투수로 투입, 과도기 대표로서 총선을 진두지휘했지만 본인은 서울 종로에서 폐배하고 춘천으로 내려가 2년여 침거했다.

분당을 보선 출마 승리



손 대표는 지난해 10월 전격적으로 전당대회에 나서 조직 열세라는 숱한 불리함을 이겨내고 민주당 대표가 됐으며 지난 4월 민주당 후보에게는 ‘지목’으로 평가되던 성남 분당을 출마, 승리를 거머쥐며 야권의 대표적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12월 통합기구 구성, 총선은 통합정당으로 치른다”



내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등 야권에는 대통합이라는 화두가 놓여져 있다. 한나라당과의 1:1 구도를 만들어 총선에서 승리하고 나아가 대선에서 정권탈환에 나서라는 것이다. 당장, 10월 26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의 야권단일후보 선출 등을 둘러싸고 야권대통합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에서는 대통합보다는 선거 연대에 방점을 두고 있다. 대통합이 논의되다고 해도 공천과 지원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좀처럼 길이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야권대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 진영에서도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통합을 추진하고 나선 상황이다.

광주일보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우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야권대통합의 길을 물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무산된 다음 날인 25일 집무실인 국회의원 회관 301호실에서 만난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표정은 밝았다.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인터뷰에서 손 대표는 시대적 의무와 책임 등을 거론하며 야권대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 손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야권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며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진지하게 야권대통합에 대한 희망을 얘기했다.

-야권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는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서 찾을 수 있다. 국민은 승자독식으로 대변되는 특권과 반칙의 사회,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경제, 부자 중심의 정치 종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야권이 힘을 합쳐 외회 권력과 정권을 교체하라는 것이다. 대통합은 야권에 주어진 시대적 의무며 책임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한나로 둥쳐 정권을 교체하라’는 유훈을 남겼다.

-야권대통합의 성사 가능성은.

▲낙관적이다. 시대적 요구며 정권교체의 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 크기 때문이다. 내년의 정권교체는 우리 역사가 제대로 가느냐, 뒤행하느냐의 갈림길이다. 이 같은 절박성이 대통합을 명령하는 것이다.

-타 야당에서는 진보정당 간의 ‘통합’을 주장하며 민주당과의 대통합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런 정도의 진통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이미 야권대통합의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 정치권을 넘어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한 야권의 공동대응으로 통합의 분위기가 더욱 상승하고 있다. 민노당이 국민참여당과 합당을 논의하면서 민주당과는 못한다.

-대통합을 견인할 북안은.

▲민주당부터 희생하고 협신하겠다. 나부터 기득권을

대회까지는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합을 위한 방법론으로 정파등록제가 거론되고 있다.

▲한국정치사에서 한 번도 해본적이 없어 검토해야 할 것이 많겠지만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타 야당을 암시시킬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로가 머리와 가슴을 맞대고 대통합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노선이 다른 정당 간의 대통합은 선거를 위한 ‘가설

밖에 길이 없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동안 있었던 통합 논의가 자양분이 되고 기반이 될 것이다.

-공천 개혁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합과 공천개혁에 넘은 일기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대통합과 공천 개혁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변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뼈를 깎는 혁신에 나서야 하며 이 같은 혁신의 핵심에는 공천 개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구 주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공천 개혁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혁신을 일구겠다.

-호남에서의 변화는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호남이라고 인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혁신이 아니다. 호남은 다른 지역보다 보다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겠지만 차등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 호남 유권자가 선택하는 길을 찾겠다.

-종도와 진보 노선을 둘러싸고 당내에 미묘한 갈등이 있다.

▲기존의 낡은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제는 민생이 시대적 핵심이다. 진보든 종도든 민생을 중심으로 가야 한다. 누가 더 민생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

-손 대표가 내세우고 있는 민생 진보는 어떤 의미인가.

▲정치의 최고 목표를 민생에 두고 진보적 성장과 보편적 복지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진보적 성장이란 승자독식의 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중소기업과 사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투자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과 내수, 성장과 고용이 선순환하게 만드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 시혜적 차원의 복지를 지향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 차원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다.

-차기 대선에서 근소한 차의 승부를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의 상승세가 꾸준하다. 야권 대선 후보군에 대한 지지 총량도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등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에 따른 반사 이익이 아니라 민주당의 내부 동력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지난해 10월 전당대회에서 손학규를 통해 집권 의지와 가능성을 보여줬으며 국민은 지난 4·27 재보선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

-이번 서울시 주민투표 무효가 보여주는 의미는.

▲보편적 복지의 길은 거슬를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이다. 또한, 민주당에게 그 길을 가라고 명령한 것이다.

-지지율 등락과 각종 정치적 현안으로 고민이 많을 것이다. 어떻게 극복하는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쓰던 ‘경천애인’의 뜻을 새긴다. 하늘을 둘러워하고 국민을 섬긴다는 자세로 긴 안목을 토대로 순리대로 풀어가겠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당이 희생해야 하지만

호남에만 양보요구 안할 것

중도·진보 당내 갈등은

‘민생우선’ 앞에 무의미

”

정당’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 않다. 선거를 위한 가설정당 성격이라면 이 같은 어려운 과정을 겪겠나. 시대적 흐름은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의 양당제의 구도다. 물론 노선과 정책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민주, 민생, 평화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다. 야권은 이미 노동 현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책 연대를 펼쳐왔다. 이러한 축적된 성과와 신뢰는 대통합 정당의 탄생에 밀가루를 될 것이다.

-통합보다는 연대가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특정 지역과 인물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다. 희생과 혁신의 각오를 밝힌 것이며 타 야당의 결단을 촉구한 말이다. 호남은 넘어 전국을 같이 놓고 그 기준을 만들 것이다. 통합 정신을 갖고 임하면 길이 보일 것이다.

-대통합의 시기와 이를 위한 통합전략대회에 대한 입장은.

▲구체적 시기를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년 총선은 통합 정당으로 치러져야 한다. 적어도 12월까지는 구체적 통합 기구를 구성한다는, 통합 결의를 하는 전당

맞지 않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연대를 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연대보다는 통합이 현실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 이전의 6·2 지방선거에서도 지역적으로는 몰라도 전제적으로 연대를 하지 못했다. 결국 대통합

2011년 태양광 발전 주택보급 실시!!

아직도, 전기를 돋내고 사용하십니까? 주택용 태양광발전 선착순 한정 접수

태양광이란(Sanyo Module)?

반도체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조 50% 확정

태양광발전(주택용)설치 후 효과



2KW 용량의 태양광 발전 설치시 월평균 약 240~300KWh의 전력을 생산 가능하고 사용량에 따른 전기료를 절약합니다.
월 최대 약 25만원을 절약 시켜드립니다.

태양광 주택 사업 설치 사례

태양광 주택 사업이란?
일반주택, 공동주택, 국민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범국민적 이용을 확대하여 관련기업의 안정적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태양광 시장 창출과 확대를 유도하며, 기술발전을 통한 중장기 수출전략 분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태양광 주택 보급 상담문의 (주)동성에어텍 ☎ 062-512-1180 / H.P 011-659-7001

광주·전남
기능장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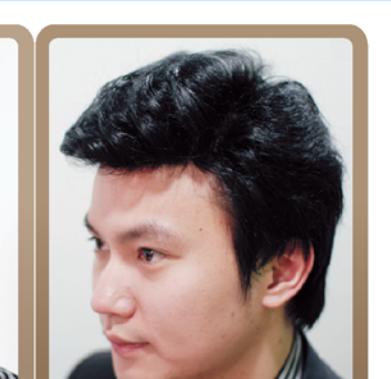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사후



주소(D) 대산프리모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혀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민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